

감꼭지나방(*Stathmopoda masinissa*)의 발육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

김정화, 김길하, 박은철, 최경환
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

감꼭지나방(*Stathmopoda masinissa* Meyrick)을 15℃, 20℃, 25℃, 30℃의 항온조건에서 16L:8D와 50~60% RH와 감잎과 열매를 먹이로 사육하면서 온도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난기간은 15℃, 20℃, 25℃, 30℃에서 각각 23.1일, 10.2일, 6.3일, 4.1일이었으며, 15℃에서 가장 길었다. 온도별 유충기간은 20℃, 25℃, 30℃에서 각각 57.0일, 24.7일, 20.4일로 20℃에서 가장 길었으며, 15℃에서는 2령 이후 사망하였다. 용기간은 20℃, 25℃, 30℃에서 각각 29.4일, 12.2일, 10.1일이었다. 암컷 성충수명은 25℃, 30℃에서 각각 8.6일, 7.0일이었다. 부화율은 15℃, 20℃, 25℃, 30℃에서 각각 47.4%, 42.1%, 89.2%, 47.4% 이었으며, 용화율은 20℃, 25℃, 30℃에서 각각 13.4%, 44.8%, 11.0%이었다. 25℃에서 가장 높은 부화율, 용화율을 나타내었으며, 우화율은 25℃, 30℃ 각각 100%, 89% 이었다.

온도별 산란전기간, 산란기간 및 산란수를 조사한 결과 산란전기간은 25℃, 30℃에서 각각 3.8일, 2.5일 이었으며, 산란기간은 25℃, 30℃에서 각각 4.1일, 2.8일 이었고, 산란수는 암컷 1마리당 25℃, 30℃에서 각각 25.4개, 10.8개를 산란하였다.